

알테오젠, 3분기 누적 영업이익 873억... "최대실적 달성"

등록 2025.11.14 14:10:08



[서울=뉴시스] 알테오젠 본사 및 연구소 조감도 (사진=알테오젠 제공) 2025.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바이오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은 14일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누적 연결기준 매출액 1514억원, 영업이익 87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알테오젠 설립 이래 3분기 누적 기준 최고 실적이다.

3분기만으론 연결기준 매출 490억원, 영업이익 267억원, 당기순이익 22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00% 성장했고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회사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주사(SC) 제형 FDA 허가에 따른 마일스톤(기술 이전 기술료) 2500만 달러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키트루다 SC의 타지역 허가 및 판매에 대한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어 향후 꾸준한 매출 증대를 기대했다.

알테오젠은 올해 3분기 ▲주요 파이프라인의 제품화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코스피 이전상장 추진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했다.

회사는 상업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CMC(제조공정) 전문가 이영필 박사를 최고제품책임자(CPO) 및 부사장으로 영입하고, 파트너사에 대한 공급 역량을 강화했다.

지난 7월엔 피하주사 전환 기술인 'ALT-B4' 물질특허를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해 오는 2043년까지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 피하주사 제형 전환을 검토 중인 글로벌 제약사에게 보다 강력한 기술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코스피 이전 상장도 추진하고 있다. 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을 선정했으며, 내달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해 주주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이사는 "3분기는 알테오젠 핵심 제품(ALT-B4)을 활용한 첫 제품의 상업화가 본격화된 시기로 기념비적인 마일스톤을 달성했다"며 "이를 통해 자생적 성장 구조를 확립했고, 앞으로 기술 제휴 확대 및 자체 생산시설 확보로 성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